

알버타 주민들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타주로 이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지방간 이주로 인한 알버타 주민 2,733명이 타주로 떠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수치는 3분기 연속 순증가한 것이다.

캘거리 대학 공공정책 대학의 경제학자인 블레이크 셰퍼는 역사적으로 알버타가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주민을 다른 지방으로 잃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1980년대 후반에 이곳에서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큰 이탈을 겪었다. 그리고 우리는 2016년 경에 상당히 큰 폭의 침체를 겪었다."라고 셰퍼는 말했다.

"먼저 이번 일은 주 내 경제난과 일자리 감소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기회를 노리고 떠나는 경제이야기이다."

알버타를 떠나는 대부분은 브리티시 컬럼비아로 이동했으나 2분기 동안 전 알버타 주민 3,586명이 증가했다. 셰퍼는 이것이 알버타와의 근접성 때문이며 게다가 BC의 따뜻한 날씨 때문에 알버타를 떠나



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현재 모두 COVID로 인해 경기 침체를 겪고 있지만 COVID 이전으로 돌아가면 BC가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BC에서 기회를 위해 떠나는 젊은이들과 노년층, 은퇴자들이 더 따뜻한 지역으로 향하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셰퍼는 알버타가 서부 이웃으로 주민들을 잃었지만, 이주는 양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2쿼터에는 9,302명이 알버타를 떠나 BC로 향했고 5,716명이 BC에서 알버타로 이동했다. 그는 또 다른 추세는 알버타에서 대서양 지방으로 돌아가는 순흐름으로의

회귀라고 말했다.

UCP 정부와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몇 달 동안 알버타 의사들이 이 지방을 떠나는 이야기도 뉴스가 되고 있다.

알버타는 또한 COVID-19 대응행 당시 국경 폐쇄로 인해 전분기보다 88% 감소한 2분기 동안 국제이주가 크게 감

소했다. 또한 캐나다에서 1인당 출생으로 인한 자연적인 성장을 가장 많이 했다.

이 자료는 캐나다 컨퍼런스보드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의 급증 예상과 함께 추운 날씨가 다가옴에 따라 캐나다 경제 회복이 겨울 동안 지연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최근 전망을 발표한 데 따

른 것이다.

이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많은 부문에서 과거 최고치로 돌아왔지만, 앞으로 회복 속도는 급격히 느려질 것으로 보이며, 많은 부문에서 COVID-19 백신이 대중에게 보급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회복이 기대되지 않는다.

셰퍼는 알버타가 석유와 가스 부문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터널 끝에 빛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단기 불확실성 속에서 업계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이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급전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분야로 따지면 희망적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낙관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방 GDP 측면에서 우리를 매트에서 내쫓을 것 같지는 않다."

새로운 데이터는 또한 알버타의 총 인구 수를 업데이트했다. 도내 인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속 증가해 알버타의 공식 인원은 442만 1,876명으로 늘어났다.

캘거리 의회, 시외곽 11개 신규 주거단지 건설에 제동



캘거리 의회는 11개의 새로운 주거단지를 도시 외곽에 추가하는 것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시의원들은 지난 3일 저녁 신규주거단지 건설 계획 반대하는 시 행정부의 안에 13대 1로 찬성표를 던졌다.

시의 권고안은 다음 사항으

로 요약된다.

신규 주거단지 개발자들이 계획안을 2022년에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계획되고 있는 주거단지 지역의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자체 개발에 적극 나서도록 장려한다. 행정부에 주택 수급에 대한 새로운 예측을 개발하도록 요청한다.

와드 서덜랜드 시의원만이

유일하게 행정부 권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에반 울리 시의원은 "물론 우리는 투자를 원한다. 건설과 개발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시의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투자를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명하게 결정해야 하고 시민들이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2년 전 새로운 주거단지 개발 계획에 찬성

한 것이 실수였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과 새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등을 감안할 때 11건의 신규 주거단지 개발 신청을 모두 기각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도시 내 미분양 주택은 수백 채로 지난 20년간 최악의 경기를 보이고 있고 캘거리에는 이미 향후 12년간의 단독주택이 공급안과 18년간의 다주택 건설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시의회가 신규 주택 수요 감소 예상에 따라 8개 승인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4개 신규 커뮤니티를 승인했다.

이 결정으로 2019년 재산세

가 0.75%로 올랐고 2022년까지 전기 가스 등 기본 공공요금도 매년 0.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해, 의회는 그 땅이 이미 개발자들의 손에 있고 시재정도 악화되어 긴급 서비스, 대중교통 대책을 세우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라 펠러 시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주민들은 새로운 커뮤니티가 승인될 경우 소망서가 시 외곽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 계획안 중 일부에 찬성하는 안을 제시했던 조 마글리오카 시의원은 더 많은 이웃이 건설되지 않으면 건설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업 사례들은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나타내며,

이 도시의 새로운 세수"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시정 관계자들은 새로운 개발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랫돌 빼서 잇돌 고기로 건설 활동이 단지 다른 지역으로 잠시 이동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신규 커뮤니티 개발이 캘거리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킬 것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캘거리시의 기후 변화 관리자인 닉 에버슨은 "여기 알버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날씨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고,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정 관계자들은 새로운 주거단지를 추가하면 시가 향후 3년 동안 1,88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프, 지난해 캐나다에 182억 달러 경제적 이익 창출



캐나다의 골프 산업이 2019년에 전국적으로 182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고 최근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내셔널 얼라이드 골프 협회를 대표하여 그룹 ATN 컨설팅에 의해 작성되었다.

골프의 182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은 2013년과 2019년

사이에서 캐나다 국내 총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14%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골프산업은 직영효과와 분사효과를 통해 2019년 24만 9000명에 육박하는 인력을 고용해 가계소득 106억 달러에 기여했다.

분석 결과 캐나다 골프산업이 연방 18억 달러, 지방 21억 달러 등 총 45억 달러의 세수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골프장과 골프장 운영자들이 복수의 산업 데이터 출처와 함께 작성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2014년과 2009년 이전 연 구들의 후속 조치이다.

캐나다 언론에 의한 이 보고서는 2020년 11월 3일에 처음 발표되었다.

TransAlta의 천연가스 전환으로 하이베일 탄광 수백명 실직



트랜스알타는 캐나다 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천연가스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말까지 알버타 북부 하이베일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수백명의 실직자가 나오게 되었고 이는 예상보다 4년 이른 것이다. 일찍 발표했다.

여명 파렐 트랜스알타 CEO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하이베일의 석탄 채굴이 종료된 후 40-50명이 매립 작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베일 탄광은 한 때 1,500명의 직원들을 고용했었다. 하이베일 광부들을 대표하는 United Steel Workers의 로이 마이러인 노조위원장도 직원들이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 빨리 닥쳤다고 말했다.

에드먼턴에서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와바분 호수 근처의 하이베일은 트랜스알타가 소유한 3개의 노천탄광 중 하나이다.

석탄에서 발생하는 알버타의 전력 비율은 1980년대 80% 이상에서 지금은 3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2007년부터 시작된 석탄에 대한 지방 정부의 거부감서 기인되었다.

살린 스마일리 시장은 "하이베일 인근 마을인 와바분에서는 수십 년 동안 석탄 채굴이 지역사회의 정체성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탄광의 폐쇄로 주민의 약 3분의 1이 직접 피해를 입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